

## 체계적인 번역 관리 제도를 마련할 때

로버트 콜러 서울셀렉션 《서울》 편집장

외국인 특히 단체로 한국에 온,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번역된 공공 용어는 참 중요하다. 물론 공공 용어는 번역이 없거나 엉뚱하게 번역된 경우에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어느 국내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다. 울산에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진 암각화가 있다. 선사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여러 시대의 생활이나 사상을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자료로, 국보 제147호에 지정됐다. 외국인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그곳에 찾아갈 수 있어야 볼 수 있지 길을 못 찾으면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도 감상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울산 울주군 대곡면 천전리 울산~경주 간 35번 국도 인근에 있는 ‘천전리 각석’을 소개하는 안내판마다 영문 표기가 각각 다르다. 하나는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로 돼 있고, 또 하나는 “Petroglyphs in Cheonjeon-ri, Ulju”로 돼 있으며, 다른 하나는 “Ulju Cheonjeon-ri Petroglyphs”으로 돼 있다. 어떤 것은 “Cheonjeon-ri Square Stone”로 돼 있는 표지판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 유적지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도시든 지방이든 어디에나 있다. 한마디로 보편적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복궁을 살펴보자. 서울특별시청이 만든 자료엔 Gyeongbokgung(Palace)으로 쓰여 있지만 문화재청이 만든 자료엔 괄호 없이 Gyeongbokgung Palace로 쓰여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Namhansanseong(Fortress)으로 쓰고 문화재청은 Namhansanseong Fortress로 쓴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기도관광공사의 영문 관광 포털 사이트엔 남한산성이 Namhan Sanseong Fortress로 표기돼 있고 성남시 영문 누리집에는 Namhansanseong Mountain Fortress로 표기돼 있다.

물론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표기가 달라도 나름대로 잘 찾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번역 불일치는 외국인이 관광하는 데 불편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가이드 없이 다니는 단독 여행자들이 관광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엉뚱한 표지판이라고 지적한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이런 표기법 문제 때문에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2012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 있을 수 없는 번역 오류가 있었다. 그 동상 앞 안내판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설명하며 “King Sejong the Great, who devised the Korean characters Hangeul(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창안한 세종대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2009년 이 동상을 세울 때 “who invented our national language Hangeul(우리 나라의 언어인 한글을 발명했다)”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것만 감안하면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해

도 한글은 한자처럼 “Character”가 아니다. “Alphabet”이다. 이런 잘못된 표기는 마치 동아시아의 유일한 알파벳이 중국의 한자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처럼 번역의 불일치나 오류는 관광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한식의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고 당국에서도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다. 이런 노력에도 번역 불일치가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인 된장찌개를 보자. 한국관광공사가 된장찌개를 로마자로 “doenjang jjigae/Soybean Paste Stew”로 표기하는데 한국의 한식 세계화를 추진해 온 한식세계화재단은 로마자 표기 없이 “Soybean Paste Stew”로 소개한다. 한식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이 두 설명이 똑같은 음식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게다가 엉터리 번역으로 원래 맛이 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위키트리(Wikitree)》 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식당에서 동태찌개를 ‘다이내믹 스투(Dynamic stew)’라고 표기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Dynamic stew’란 식품을 먹겠는가? 닭똥집을 ‘Chicken asshole house’로 욕까지 포함해 표기하는 집도 있다고 한다.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다.

물론 수많은 공공 기관이 각각 자기 기준으로 영문 표기를 하는 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지 모르겠다. 사찰에 가면 대부분 ‘대웅전’이란 전당이 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전당으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영문 표지판이나 영문 누리집을 보면 참 한심하다. 문화재청 영문 누리집에는 ‘Daeungjeon Hall’로, 국제교류재단은 ‘Hall of the Great Veneration’로,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에는 ‘Daeungjeon Hall/ Hall of Sakyamuni’로, 한국관광공사 전자 지도에는 ‘Main Hall’로,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용어 시소러스

에는 ‘Hall of Sakyamuni’로, 서울시청 누리집에는 ‘Hall of Sakyamuni’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Main Hall/Hall of Sakyamuni’로 각각 표기했다. 이처럼 번역이 공공 기관 간에도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관 광공사에서는 기관 내에서도 용어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고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캐나다에는 전문 공공 번역 기관인 공공사업 및 행정 서비스부 번역국(Translation Bureau of the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이 있다. 이 기관이 공공 용어 사전도 만들고 공공 공간에서 일치된 기준도 유지한다. 중국도 1955년에 국무원 어문번역연구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번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한국도 이와 같이 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